

초등학생의 개인 및 부모환경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

설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정 승 원

서울흑석초등학교

본 연구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을 가족 및 환경요인, 개인요인 그리고 아동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유대감 및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각인 학교소속감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정보제공, 자녀의 학습방법 존중과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를 가족요인으로 그리고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내적동기를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측정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사교육 시간을 측정하여 사교육시간을 통제하고 부모요인이 개인요인 그리고 아동의 학교소속감의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 및 개인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아동의 학교소속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적인 학습관여는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 증가로 이어진 것은 물론 아동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적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 상관은 없었고 아동의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속감, 학업성취, 부모관여, 성실성, 내적동기

* 본 연구는 정승원의 2012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학업성취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및 발달의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포함한 미래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oropat, 2009).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뜨거운 쟁점이자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김선숙, 고미선, 2007). 이렇게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중요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최종관문처럼 여겨지는 대학입시에 보다 가까운 고등학생 그리고 그 이전단계인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미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초등학생에게도 뜨거운데 반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했고 특별히 아동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유대감 및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각인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 Morris, 1998)에 근거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를 인접과정 체계(proximal processes)로 이해하고 부모학업관여와 사교육의 가족 및 환경 변인에서 아동의 성격, 내적동기의 개인 변인의 경로 그리고 학교소속감변인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있다.

가족 환경 요인: 부모의 학습관여와 사교육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예

측하는 중요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Cheung & Pomeratz, 2012).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 지지, 부모의 학습참여, 학습 환경 조성,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 행동이 포함된다(Hill & Tyson, 2009).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의 학습에 대한 태도, 동기, 목표, 신념과 관련된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Wigfield, Byrnes, & Eccles, 2006).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매개변인 연구 중 학습동기가 자주 연구되었는데 Grolnick, Ryan와 Deci(1991)는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핵심은 아동의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아동의 학습동기의 향상은 곧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미국, 중국학생 모두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학생의 학습동기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ung et al., 2012). 비록 부모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성실성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성실성의 50%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결과(Roberts et al., 2012)를 생각해볼 때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아동의 성실성은 부모의 학습관여와 상관이 크리라 예상된다. 부모의 학습관여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관련 있는 부모의 양육유형과 성실성과의 관계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성실성은 부모의 양육 유형 중 온유형과는 정적관계를 허용형과는 부

적관계를 나타냈다(이강욱, 이미현, 한복환, 2009). 즉,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자녀의 감정과 필요를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실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를 아동의 개인요인 성실성과 내적동기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동의 개인요인과 학업성취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인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검증했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있어 환경 요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교육 시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김태균, 권일남, 2009). 특히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와 투자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사교육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정적 관계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르고 일관되게 보고되었다(구정화, 한진수, 2010; 백순근, 박경인,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 부모 변인과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서 사교육에서 학업성취로의 경로를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 부모요인과 개인요인, 그리고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개인요인: 아동의 성실성과 학업동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중 성격변인, 그 중에서도 성격 5요인 이론의 성실성은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고, 책임감과 조직성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특성의 하위 구인으로 이루어진 성격요인(Roberts, Lejuez, Krueger, Richards, & Hill, 2012)

으로 학업 성취도와 가장 관련 있는 성격특성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안도희, 2009; Poropat, 2009). 최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대상의 성격 그리고 심리 정서적 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실성은 초,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성격변인이었다(Poropat, 2009; Richardson, Abraham, & Bond, 2012). 특히 성실성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근접변인(proxy)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언어 점수를 통제하고서도 대학생들의 평점(GPA)을 가장 잘 예측했다(Noffel & Robins, 2007). 국내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실성은 학교교과목 전 과목 성적을 예측하는 유일한 성격변인이었으며, 청소년들의 객관적인 학교성적이외의 학교환경(예: 수업, 교사, 교우)적응과도 높은 긍정적 상관을 보였다(하대현, 황혜익, 남상인, 2008). 최근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실성은 성격5요인 이론의 성격 특성 중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이선희, 최영임, 2011).

성실성의 성격요인과 함께 학업에 임하는 동기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요인이다. 그 중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자율성 욕구와 관련된 내적동기는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내적동기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내적인 보상 체계에 의해 자발적 과제 수행을 의미하는데,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지시, 직접적 보상이 없어도 과제 자체에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성취를 이루려는 동기이다(Hayenga & Corpus, 2010). 아동의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와 학업성

취도와 의 정적 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고(Lepper, Corpus, & Iyengar 2005) 성실성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내적동기가 매개하기도 하고(Richardson & Abraham, 2003) 내적동기가 성실성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한다(Bidjerano & Dai's, 2007). 예를 들면, 내적동기의 구성요인인 학업에 대한 지속적 추구의 끈기(persistence)는 성실성의 하위 요인인 근면성(industriousness)과 매우 밀접한 개념이다(Peabody & De Raad, 2002). 성실성의 하위요인인 근면성이 높은 사람은 배움에 대한 열망과 포부가 크고 자신감이 높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Roberts, Chernyshenko, Stark, & Goldberg, 2005) 내적동기가 높은 사람 역시 도전을 즐기고, 학교공부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고 학교 공부를 잘하고자 열망이 높다. 이렇게 서로 상관이 높은 동시에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두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개인요인의 측정변인으로 함께 묶어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교소속감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본능(the need to belong)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근원적이고 강렬한 본능이 있으며 생존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도 소속감이 필요하며 소속감의 결여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삶의 의미상실과 같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일으킨다. 소속감의 중요성은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이론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소속감은 유능감, 자율성과 함께 인간의 기본 3대 욕구 중 하나이다. 학교는 학

생들이 가정외에 자신이 속한 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여겨진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이 되는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소속감은 이들의 학업성취와 같은 적응적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교소속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교나 학교 내 사람들에 얼마나 선호되며,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지각의 사회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 된다(Goodnow, 1993). 학교소속감은 학생들의 학업 그리고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ooker, 2004). 학교소속감은 학생들의 근본적인 소속에 대한 욕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사회에 적용된 것인데, 학교소속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이다(Anderman, 2002). Sirin과 Rogers-Sirin(2004)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있어 학교소속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학교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적은 물론 학습동기와 학습관여수준이 더 높았다(Osterman, 2000).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소속감의 중단연구에 의하면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는 중요한 변인이었다(Catalano, Haggerty, Oesterle, Fleming, & Hawkins, 2004).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취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임은 물론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Kuperminc, Darnell과 Alvarez-Jimenez(2008)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생들의 학교소속감을 매

개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아직 국내에는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별히 초등학생들의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적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사실, 국내에서 학교소속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영주, 김동신과 이정원(2012)이 최근 국내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유일한데, 그들은 고등학생의 학교소속감이 부모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관여가 높을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더 높았는데, 이때 고등학생의 학교소속감이 높을 경우 부모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더 높았고, 학교소속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과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영주 외(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원의 환경변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의 개인변인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따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학교소속감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부모 환경 변인과 개인변인 모두를 고려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소속감은 이들 변인간의 중요한 매개 변인일 수 있고(Benner, Graham, Mistry,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모형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해 초등학생의 학업성

취도를 설명하는 가족 및 환경, 개인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인 학교소속감의 체계적 경로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1은 긍정적 부모학습 관여는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의 개인요인 증가 그리고 개인 요인의 증가는 학교소속감 증가로 이어져 결국 학업성취가 증가되는 모형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가 아동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아동의 성실성 및 내적동기의 개인 내적 요인을 매개로 아동의 학업성취로 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와는 달리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의 개인내적 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명확히 밝힐 만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학교소속감이 학교라는 중요한 사회적 장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속감에 대한 변인임을 생각할 때 아동의 학업성취를 직접적 예측함은 물론 아동 개인요인과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예상했다. 본 연구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성실성과 내적동기로 구성된 아동의 개인변인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 그리고 개인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학교소속감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끝으로 개인요인과 학교소속감이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270을 대상으로 하였다.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저자가 직접 교실을 방문하여 아동의 성격, 내적동기, 부모의 학습관여, 학교소속감 및 사교육 여부와 사교육 시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성적은 2012년 3월 진단평가 결과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아동 중 불성실한 응답자와 전출, 전입, 결석 등의 이유로 성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253명의 자료 중 성적이 표준편차 3이하의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3명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250명(남아=120명, 여아=13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측정도구

성실성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선희, 최영임(2011)의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의 성실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며 총 18문항으로 성실성,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그리고 외향성의 Big 5 성격 요인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성실성 척도는 총 4문항이고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것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실성의 내적 타당도(Cronbach's α)는 .70이었다.

내적동기

아동의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1)의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을 김은아(2006)가 번안 및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과 숙달(mastery)에 대한 내적 및 외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도전적 과제선호 7문항(예: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즐거워서 어려운 문제를 좋아한다.”), 호기심과 흥미 7문항(예: “나는 지금 배우는 쉬운 내용 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다.”), 독자적 결정 7문항(예: “나는 선생님이 정해주신 공부보다는 내가 스스로 정한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패의 내적판단 5문항(예: “나는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이미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다.”)의 총 26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동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부모의 학습관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연수(2008)의 어머니의 학습관여형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신 ‘부모님 (나의 공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한 분을 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긍정적 학습관여유형인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요인 9문항(예: “부모님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아 두었다가 전해주신다.”)과 자녀학습방법 존중

요인 4문항(예: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과 부정적 학습관여 유형인 학업성과 압력요인(예: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십니다.”) 7문항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학습관여의 학업성과 압력요인을 역 채점한 후 2개의 긍정적 학습관여 유형 요인과 합산하여 부모의 학습관여 총점을 계산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가 높은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다.

사교육 시간

사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교과, 예체능, 취미 관련 수업”으로 연구대상 아동에게 안내한 후 아동의 사교육 여부와 사교육 시간을 물었고 1=1-3시간, 2=4-6시간, 3=7-9시간, 4=10시간 이상으로 답하게 하였다.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12명의 아동의 경우 사교육 시간을 0으로 코딩하였다.

학교소속감

학교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oodenow (1993)의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Scale을 진수경(1999)이 한글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8학년의 초기 청소년기 및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심리적 소속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18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리커트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존

중해주는 편이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나는 내가 우리학교의 한 부분이라고 느껴진다,” “나는 우리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학업성취도

2012년 3월에 실시한 교내 진단평가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평가지는 3월 초 서울시교육지원청에서 문제은행 형태로 제시한 진단평가 예상 문제를 5학년 담당 교사들이 발췌하여 편집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은 89.46 표준편차는 7.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자료 분석 전략

본 연구는 SPSS 19와 AMO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소속감의 학업성적과 아동의 개인요인인 성실성과 내적동기 그리고 부모요인인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에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and the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세 개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지침에 따라 CFI는 .95보다 크고 TLI는 .90 보다 클 때, RMSEA는 0.06

보다 작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셋째,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과 부스트래핑(Shrout & Bolger, 2002)을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총 250명의 연구 참여 아동 중 238명(95.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아동 중 주당 사교육 시간은 39명(15.6%)이 3시간 이하, 59명(23.6%)이 4-6시간, 44명(17.6%) 7-9시간, 92명(36.8%)이 10시간 이상이라 응답했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의 평균은 3.63($SD=.77$)이었다.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의 평균은 각각 3.54($SD=.68$)과 2.79($SD=.47$)이었다. 학교소속감은 평균 3.72($SD=.67$)이었다. 왜도와 첨도값을 검

토한 결과 모두 1을 넘지 않아 정상성 가정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을 포함한 연구변인의 성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연구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사교육과 성적, 그리고 아동의 개인변인인 성실성, 내적동기 그리고 학교소속감과도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아동의 학업성적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아동의 성실성, 내적동기와 중간크기의 그리고 학교소속감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인변인으로 측정되었던 성실성과 내적동기는 .53($p<.001$)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 이 두 변인이 통계적으로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을 측정하는 구인임을 보여줬다. 아동의 개인요인과 학교소속감 중간 크기 이상의 유의미한 상관 값을 보였다 (표 1).

표 1. 아동의 학업성적과 부모요인(부모학습관여), 개인요인(성실성, 내적동기), 학교소속감과 사교육의 상관($N=250$)

	성적	사교육	성실성	내적동기	학교소속감	부모학습관여
성적	1					
사교육	.31***	1				
성실성	.28***	.18**	1			
내적동기	.30***	.11	.53***	1		
학교소속감	.32***	0	.37***	.46***	1	
부모학습관여	.08	-.02	.25***	.35***	.46***	1

** $p < .01$, *** $p < .001$

학교소속감의 매개모형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의 개인변인들과의 관계를 학교소속감이 매개하는 연구모형(그림 1)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chi^2=10.6$, $df=6$, $CFI=.984$, $TLI=.960$, $RMSEA=.055$).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아동의 학업성취간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인 성실성과 내적동기 수준이 높았고($\beta=.42$, $p<.001$) 이는 아동의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로 이어졌다($\beta=.27$, $p<.01$).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아동 개인 요인이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데 아동의 학교소속감이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인 성실성과 내적동기에 정적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소속감 증가에 정적 관

계가 있었으며($\beta=.27$, $p<.01$), 학교소속감의 증가는 학업성취 향상으로 이어졌다($\beta=.22$, $p<.01$). 이 모든 결과는 모형에 사교육이 학업성취로 가는 직접경로를 포함하여 사교육이 아동의 성적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beta=.27$, $p<.001$) 통제한 결과이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학교소속감의 간접효과 및 매개변인으로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표 2). 먼저 부스트래핑을 이용해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개인요인->소속감->학업성취의 이중매개모형의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알아본 결과 간접효과 표준화 계수 .21은 $p<.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AMOS를 통한 이중매개모형에서 개인요인과 소속감의 각각의 간접효과는 산출하지 못했지만, 표 2와 같이 부모요인->소속감->학업성취, 그리고 개인요인->소속감->학업성취 각각의 매개모형에 대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이 완전매개를, 개인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이 부분 매개 하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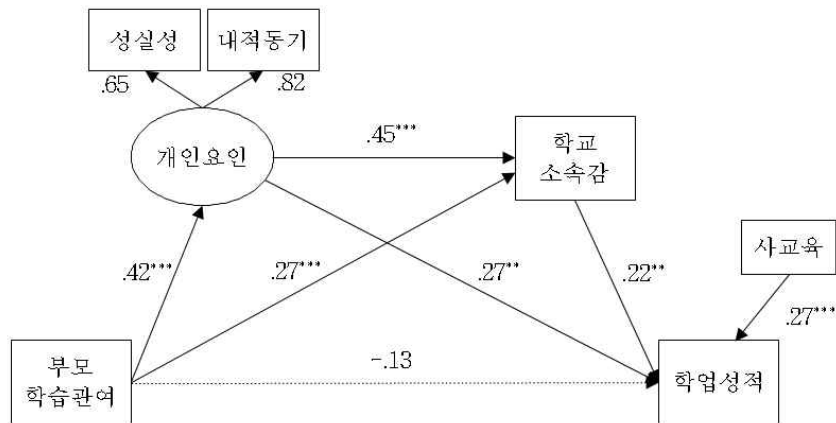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개인변인과 학업성취과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모형과 표준화 계수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표 2. 매개변인에 대한, 직접, 간접, 총효과 및 Sobel검증 결과(N=250)

독립변수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obel Test(z)		
	매개변수	종속변수						
부모학습관여	→	개인요인	→	소속감	.26**	.19***	.45**	3.93***
개인요인	→	소속감	→	학업성적	.27**	.10**	.37***	2.67**
부모학습관여	→	개인요인→소속감	→	학업성적	-.13	.21***	.08	
부모학습관여	→	개인요인	→	학업성적				2.61**
부모학습관여	→	소속감	→	학업성적				2.47*

주. 직접, 간접, 총효과는 표준화계수로 표기되었고 유의성은 부스트래핑 검증 결과임.

*** $p < .001$, ** $p < .01$, * $p < .05$

논 의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이 성취를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등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학교에서 아동이 소속감을 갖고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선호되며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라는 지각은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신중호, 2011). 우리나라의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중고등학교 이전, 초등학교시기부터 시작하며 초등학생들은 이미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학업을 꼽고 있다(장영애, 이영자, 2004).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 문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심리 정서적 변인 중 학교소속감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해 가족, 환경요인 그리고 개인요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예상대로 학교소속감은 초등학생의 학교성적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교소속감과 높은 학업성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ndermann, 2002; Eccles, 2009; Pittman & Richmond, 2007).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횡단 연구뿐 아니라 두 변인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가깝게 추론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왔다. 6학년을 대상의 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일 년 동안 높은 수준의 학교소속감을 유지한 학생의 학업성적이 일 년 간 학교소속감이 감소한 학생의 학업성적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Niehaus, Rudasill, & Rakes, 2012).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취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일 뿐 아니라 학교소속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결석, 정학, 혹은 퇴학의 빈도는 줄어, 결과적으로 학교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정규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확률이 높았다(Hallinan, 2008).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직접적 변인임은 물론 본 연구 모형에서와 같이 매개변인으로 자주 연구 되었다(Benner et al., 2008; Kuperminc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부모 및 개인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아동의 학교소속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적인 학습 관여는 아동의 성실성과 내적동기 증가로 이어진 것은 물론 아동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학교소속감은 학업성적 향상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 상관은 없었고 아동의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학교소속감이 중요한 매개변인이라는 선행연구와(Kuperminc et al., 2008)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에게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고 학업성취에 대해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부모의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인 성실성과 학습동기변인인 내적동기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높은 성실성과 내적동기 수준은 높은 학업성적과 직접 관련이 있었고 학교소속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학업성적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접적 관련은 없었고, 아동의 학업과 관련된 개인내적 요인인 성실성과 내적동기, 그리고 학교소속감을 통해서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동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Grolnick, Kurowski, Dunlap, & Hevey, 2000). 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 영향력이 주로 발견되었다(Cheung et al., 2012).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자녀의 학습동기, 학업에 대한 태도, 자기개념, 학업에 있어서 자기조절능력 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Gonzalez-Pienda, Nunez, Gonzalez-Pumariega, Alvarez, Rocas, & Garcia, 2002). 최근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관여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교과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혜연, 황매향, 정애경, 2011). 부모의 관여와 자녀의 학습동기에 대한 관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 연구한 종단연구에서 그 인과적 관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는데, 7학년 초기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다음 학기 아동의 내적동기와 부모의 기대와 수고에 부응하고자 하는 학습동기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8학년 초기의 아동의 높은 자기주도적 학습(self-regulatory learning)으로 이어졌고,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8학년 말의 높은 성적을 예측했다(Cheng et al., 2012). 즉, 부모의 학습관여가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적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내적,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학습동기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전략의 사용을 매개로 학업성적 향상에 기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습동기와 같은 개인내적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줌은 물론 자녀의 학교소속감과 같은 심리 정서적 변인의 증가를 통해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직까지 부모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모형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Benner et al.(2008)이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 중단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들은 연구를 통해 가족, 환경적 변인이 학생의 행동 및 신념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학업 성취도 변화시키는 모형을 확인한바 있다.

비록 부모의 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의 간접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부모의 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직접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의 경우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이 시기에 가장 높고 자녀가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점차 줄어들며(Entwisle, 1990),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간의 관계가 더 유의미한 경향이 있다(Fan, 2001). 본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의 간접효과와 함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갖는 직접적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간접효과만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관계가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부모학습관여의 측면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기도 하였다(Fan, 2001). Hill et al.(2009)의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부모관여 요인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을 감독 지시하는 것보다 부모가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학업에 대한 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숙제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가정에서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ating, 2004).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가 없었던 것은 부모의 학습관여 측정에 중요한

구인이 가정에서의 아동의 숙제를 돕는 것과 같은 학습정보제공의 측면이 강조된 것과 부모의 학습압력과 같은 부정적 학습관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내적동기향상에 대한 연구는 횡, 종단적으로 이루어져 그 관계 및 방향성이 증명된 것에 비해,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성실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녀의 성격의 유전 및 환경적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실성을 포함한 자녀의 성격은 50%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성격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Roberts, Chernyshenko, Stark, & Goldberg, 2005). 이강옥 외(2009)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그리고 수업태도로 알아본 학교적응도와 부모의 온유적 양육태도는 정적, 허용적 양육 태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모가 자녀의 학습방법을 존중하되 적절한 학습방법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학습관여 방법은 높은 온유적 태도 및 낮은 허용적 태도의 부모양육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성실성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부모 및 개인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사이에도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Osterman(200)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적의 관계를 아동의 학업관여도(academic engagement)가 매개함을 받

견했고, Hagborg(1998)의 연구에서 역시 학교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은 숙제도 더 열심히 하고 학습동기도 더 높았으며 이를 매개로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성실성과 내적동기를 개인요인으로 묶어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특별히, 부모요인을 연구모형에 함께 고려했을 때 선행연구에 근거해 부모요인은 학생 개인요인으로 학생개인요인은 학교소속감을 통해 학업성취로 연결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내적동기가 학교소속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학교소속감이 학습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Osterman, 2000). 그리고 아직까지 성격변인과 학교소속감, 그리고 학업성취의 관계의 방향성을 설명할만한 선행연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요인인 성실성, 내적동기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역할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교소속감의 관계 및 개인, 부모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인과적 관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취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소속감이 높아서 학업성적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학업성적이 높기 때문에 학교소속감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학교소속감이 학교성적을 예측하는 것은 전년도 학업성적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미 했다(Neel & Fulgini, 2012). 즉, 이전 학교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학교소속감이 높아진 것이 아니었고, 현재 높은 학교소속감은 현 해당 학년의 높은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것인데 이는 학교소속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더 높

아지는 방향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록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 역시 학교소속감과 학업성적의 경로 방향을 바꾼 모형을 검증하였으나 전혀 수용 가능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학교소속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정의적 변인과 함께 인지적 변인 역시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Chamorro-Premuzic & Furnham, 2008). 인지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에서 학교소속감과 같은 정의적 변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심리 정서적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소속감이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사교육과 부모의 관여 그리고 아동 개인의 성격 및 동기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학교소속감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을 학교라는 아동의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장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과업인 학업성취에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와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 '학교소속감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구정화, 한진수 (2010). 초등학생의 사회과 주관적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민교육연구*, 42(1), 25-52.
- 김선숙, 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연수 (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은아 (2006). 아동의 내적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균, 권일남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I)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 학업흥미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22.
- 백순근, 박경인 (2010). 여고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교과 성적 및 학교교육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3(2), 281-298.
- 신중호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 선혜연, 황미향, 정애경 (2011). 부모의 관여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1), 21-43.
- 안도희 (2009). 출생순위와 성격 5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3(3), 623-643.
- 이강욱, 이미현, 한복환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2), 181-201.
- 이선희, 최영임 (2011).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43-569.
- 장영애, 이영자 (2004).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대처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8(3), 543-569.
- 주영주, 김동신과 이정원 (2012).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도 예측에 있어 부모지원과 학교소속감의 조절효과. *교육과학연구*, 43(2), 227-243.
- 전수경 (1999). 고등학교 도덕풍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하대현, 황해익, 남상인 (2008).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학업, 적응, 진로 관련 준거와의 관계. *교육심리학회*, 22(3), 609-629.
- Anderman, E. M. (2002). School effects on psychological outcom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795-809.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nner, A., Graham, S., & Mistry, R. (2008). Discerning direct and mediated effects of ecological structures and processes on adolescents' educational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44, 840-854.
- Bidjerano, T., & Dai, D.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Five model of personality and self-regulated learning

- strategi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69-81.
- Bogg, T. (2008). Conscientiousness,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and exercise: A neo-socioanalytic integration of trait and social-cognitive frameworks in the prediction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6, 775-802.
- Booker, K. C. (2006). Exploring school belong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urriculum and Teaching Dialogue*, 6(2), 131-143.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993-1028). New York: Wiley.
- Catalano, R. F., Haggerty, K. P., Oesterle, S., Fleming, C. B., & Hawkins, J. D. (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y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74, 252-261.
-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8).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approaches to learning as predictors of academic examination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96-1603.
- Cheung, C., & Pomerantz, E. M. (2012). Why does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learning enhance children's achievement? The role of parent-oriented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 820-832.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8). From catalog to classification: Murray's needs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58-26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ccles, J. S. (2009). Who am I and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Personal and collective identities as motivators of a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4, 78-89.
- Entwisle, D. R. (1990). Schools and the adolesc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97-22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an, X.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growth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1), 27-61.
- Goodnow (1993). The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among adolescents: Scale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rrelates. *Psychology in the School*, 30, 79-90.
- Gonzalez-Pienda, J. A, Nunez, J. C., Gonzalez-Pumariaga, S., Alvarez, L., Roces, C., & Garcia, M. (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arental Involvement, Motivational and Aptitudin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3), 257-287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 contemporary theory*. (pp.135-161). New York, NY: Wiley.
- Grolnick, W. S., Kurowski, C. O., Dunlap, K. G., & Hevey, C. (2000). Parental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465-488
- Hagborg, W. J. (1998). An investigation of a brief measure of school membership. *Adolescence*, 99 (130), 461-468.
- Hallinan, M. T. (2008). Teacher influences on students' attachment to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81(3), 271-283.
- Harter, S. (1981). A new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Motivational and inform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00-312.
- Hayenga, A. O., & Corpus, J. H. (2010). Profil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Motivation and Emotion*, 34, 371-383.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 740-763.
- Keating, D. P. (2004). Cognitive and brain development.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pp.45-84). Hoboken, NJ: Wiley.
- Kuperminc, G., Darnell, A., & Alvarez-Jimenez, A. (2008). Parent involvement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Teacher expectations and school belonging as mediators. *Journal of Adolescence*, 31, 469-483.
- Lepper, M. R., Corpus, J. H., & Iyengar, S. S. (2005).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184-196.
- Niehaus, K., Rudasill, K. M., & Rakes, C. R.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school connectedness and academic outcomes across sixth grad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0(4), 443-460.
- Neel, C. G.-O., & Fuligni, A. (2012, September 24). A Longitudinal Study of School Belonging and Academic Motivation Acros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Advanced online publication.
- Noftle, E. E., & Robins, R. W. (2007). Personality predictors of academic outcomes: Big five correlates of GPA and SAT sco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16-130.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3), 323-367.
- Peabody, D., & De Raad, B. (2002). The substantive nature of psycholexical personality factors: A comparison across langu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983-997.
- Pittman, L. D., & Richmond, A. (2007). Academic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5, 270-290.
- Poropat, A. E. (2009). A meta-analysi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 *Psychological Bulletin*, 135, 322-338.

- Richardson, M., Abraham, C., & Bond, R. (2012). Psychological correlates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8, 353-387.
- Roberts, B. W., Chernyshenko, O., Stark, S., & Goldberg, L. (2005). The structure of conscientious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based on seven major personality questionnaires. *Personnel Psychology*, 58, 103-139.
- Roberts, B. W., Lejuez, C., Krueger, R. F., Richards, J. M., & Hill, P. L. (2012, December 31). What is Conscientiousness and How Can It Be Accessed?. *Developmental Psychology*. Advanced online publication.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rin, S. R., & Rogers-Sirin, L. (2005). Components of school engage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 5-13.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Wang, M.-T., & Eccles, J. S. (2012). Adolescent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Engagement Trajectories in School and Their Differential Relations to Educational Succes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 31-39.
- Wigfield, A., Byrnes, J. B., & Eccles, J. S.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 P. A. Alexander & P.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2nd edition, pp.87-113). Mahwah, NJ: Erlbaum.

원고접수일 : 2013. 02. 0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3. 28.

최종게재결정일 : 2013. 04. 01.

School Belonging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eung Won Jung

Seoul Heukseok Elementary School

School belonging has been studied as a strong and consistent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research on school belonging with Korean students is scarce. Moreover, there is no study on the link between school belonging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role of school belonging in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wo hundred fifty 5th grade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measured school belonging as well as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that could affect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pecifically, conscientiousness and intrinsic motivation were measured as an individual factor,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learning was measured as a family factor. We also measured time that students were involved with private learning institutions as a control factor. The results supported our hypotheses. School belong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School belonging also mediated the link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students' individual factor of conscientiousness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 school belonging,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school, parental involvement, conscientiousness, intrinsic motivation